

全南地方 同族部落의 構造와 機能*

張 保 雄**

《目 次》

1. 序 言	(1) 同族部落의 發生年代
(1) 研究對象과 目標	(2) 同族部落의 立地
(2) 主要概念	4. 同族部落의 構造와 機能
(3) 研究方法과 調査方法	(1) 同族部落의 有形的 要素
2. 同族部落의 概念	(2) 同族部落의 無形的 要素
(1) 同族部落의 概念規定	5. 同族部落의 解體
(2) 同族部落의 類型	6. 結 言
3. 全南地方 同族部落의 發生과 立地	

1. 序 言

(1) 研究對象과 目標

全南地方의 村落 중에서 약 56%가 同族部落이다. 全南地方에서 村落의 構成比로 보면 同族部落은 特殊部落이 아니고 오히려 一般的이고, 普遍的인 村落에 속한다. 즉 同族部落을 理解하면 全南地方의 村落을 이해 할 수 있고, 나아가서 韓國의 村落을 理解할 수 있다. 全南의 同族部落을 研究對象으로 하여 지금까지 同族部落의 研究에서 未解決된 몇가지 問題에 接近하려고 한다. 우선 同族部落을 地域이라는 空間을 構成하는 文化景觀으로 보고, 同族部落에 關한 概念을 規定하며, 空間을 占하고 있는 同族部落의 發生年代 및 그 立地에 關해서 分析하며, 同族部落을 構成하고 있는 有形的 要素와 無形的 要素의 構造와 機能을 理解하고, 현재 解體 내지 消滅段階에 도달한 同族部落의 未來에 關해서 展望해 보는 것이 本 研究의 主要 目標들이다. 그리고 地域에 따라 복잡하고 多樣한 同族部落을 하나의 모델로 整理하여 提示하려고 한다.

(2) 主要概念

本 研究에서 主要 概念으로 文化景觀을 選定

했다. 人類가 居住하는 地域에는 文化景觀이 있으며, 이 文化景觀의 하나로 同族部落을 擇하였고, 이 同族部落은 發生·擴散·發達의 貴重한 資料를 내포하고 있다. 同族部落은 時間과 空間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며, 그 機能과 構造는 복잡하고 多樣하다. 따라서 文化景觀의 形成, 發達, 消滅의 變容過程도 매우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同族部落은 當時의 社會制度, 生産樣式, 宗教, 經濟制度, 政治 등이 복합적으로 作用하여 形成 發展된 것이다. 즉 文化景觀 形成에 作用한 要因을 分析하는 것도 同族部落을 文化地理學的으로 研究하는 主要한 內容이 된다.

(3) 研究方法과 調査方法

全南地方의 同族部落을 文化景觀의 하나로 보고, 同族部落의 發生, 發達, 消滅 등의 時系列의 變容을 理解하기 위하여 文化·歷史的 研究方法(cultural-historical approach)을 援用하였다. 理論的이고 說明的인 方法이 아니고 記述的이고 歸納的인 方法으로 研究를 進行했다. 筆者가 직접 同族部落을 방문하고 資料를 수집하였으나 個人的 活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不充한 자료는 諸學者들의 研究成果에 의존하여 보충하였다.

現存하는 同族部落은 文化的·歷史的 產物이

* 이 論文은 1982年度 峨山 社會福祉事業 財團의 學術研究費에 의한 것임.

** 全南大學校 社會大 副教授(文學博士)

며, 그 概念規定도 社會學·人類學·經濟史學·地理學등의 學問的 立場에 따라 各異하다. 本研究에서는 文化地理學的 觀點에서 그 개념을 규정하려고 했다. 그리고 全南地方에서의 동족부락의 發生과 發達 및 解體過程을 考察하고, 究明하려고 했으며, 同族部落의 立地에 관해서는 주로 先學의 研究結果를 利用하고, 筆者의 조사자료를 보충하여 分析하였다.

全南의 同族部落은 매우 복잡한 形態·構造·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에, 同族部落을 구성하고 있는 要素를 有形的 要素와 無形的 要素로 分類하고, 各各의 構造와 機能을 理解하기 위하여 機能的·形態的 接近方法(functional-pattern approach)을 이용하였다.

全南地方의 位置的 特性和 地形的 特性을 고려하여 坪의상 山間에 位置하는 同族部落과 平野部에 位置하는 同族部落, 海岸에 위치하는 同族部落등으로 크게 3分類하고, 13個 同族部落을 1982年 7月~8월에 걸쳐, 現地 踏査하여 연구자료를 蒐集하였다. 實地調査한 13個의 同族部落은 다음과 같다.

山間的 同族部落

- ① 和順郡 道谷面 月谷里 濟州梁氏部落
- ② 和順郡 寒泉面 政里 綾城具氏부락
- ③ 海南郡 海南邑 蓬洞 海南尹氏부락
- ④ 長興郡 安良面 鶴松里 長興馬氏부락
- ⑤ 務安郡 夢灘面 大峙里 利川徐氏부락

平野의 同族部落

- ⑥ 羅州郡 多侍面 會津 羅州林氏부락
- ⑦ 羅州郡 茶道面 楓山里 豐山洪氏부락
- ⑧ 務安郡 玄慶面 牟村 務安朴氏부락
- ⑨ 長城郡 黃龍面 黃龍里 光山金氏부락
- ⑩ 長城郡 長城邑 梧桐村 羅州羅氏부락

海岸의 同族

- ⑪ 海南郡 山二面 皇朝里 廣東陳氏부락
- ⑫ 海南郡 馬山面 山幕里 原州李氏부락
- ⑬ 長興郡 冠山邑 傍村 長興魏氏부락

2. 同族部落의 概念

(1) 同族部落의 概念規定

同族部落에 관해서는 社會學, 人類學, 史學, 地理學分野에서 주로 연구해 왔으나, 各學問의 研究方法論上의 差異때문에 同族部落의 概念規定에 大同小異한 差異가 있으며, 아직도 定論으로 確立된 概念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同族部落에 대한 개념규정에 混線이 야기된 배후에는 同族部落의 發生과 展開에 관한 많은 미해결의 문제가 있고, 또한 동족부락의 構造와 機能이 時代에 따라 크게 變하고 있으며, 現代는 同族部落의 崩壞過程에 속하므로 그 本質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戰前의 善生永助는 그 著作인 「朝鮮의 聚落」 後篇의 머릿글에서 同族部落을 同一한 祖先에서 나온 同本同姓者가 一部落 또는 一地方에 集團으로 居住하는 것¹⁾을 가리킨다고 定義하였다. 金斗憲博士도 戰前에는 善生氏와 비슷하게 同族部落이란 同一한 姓氏와 本貫을 갖는 血族 즉, 所謂 同姓同本의 一族이 集團部落을 形成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同姓部落과는 性質을 달리한다고 하였다²⁾. 戰前의 二學者는 동족부락을 구성원의 면에서 定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戰後에 金斗憲博士는 同族部落이라고 하면 原始的 氏族集團과 同樣視하기 쉬운 階단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地緣의 同族共同體 또는 同族 地緣共同體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면서, 機能的인 方面으로 規定하고, 共祖 同族의 意識을 基本으로 삼고 集合의 行動으로 因하여 맺어진 地緣의 生活共同體라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다시 부연하여 同族集團은 同族意識에 基한 靜的 共存態임에 그치지 않고, 祖祭, 親睦, 經濟的 協同, 自衛自強등의 機能을 다하기 위하여 地緣의 利로서 언제나 集合的 行動의 便을 갖는 生活共同體라고 하였다³⁾. 李萬甲教授는 同族部落다운 同族部落은 그 部落에

1) 善生永助, 1935, 朝鮮의 聚落, 後篇, 朝鮮總督府, p. 1.

2) 金斗憲, 1934, “朝鮮의 同族部落에 就いて,” 靑丘學叢, 第18號, pp. 61-62.

3) 金斗憲, 1980,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p. 107.

同姓同本人이 集居하고 있다는 事實만 가지고 규정될 수 없을 것이고, 그들간에 同族 結合을 維持하기 위한 어떤 뚜렷한 形式的 組織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⁴⁾ 말하고, 그 例로서 元始祖 또는 中間始祖의 墓所가 있는 곳에 同族人들이 居住하고, 거기에 齋室이 있고, 宗會가 조직되어 秋季마다 時享祭가 열리고 있는 경우의 部落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同族部落인가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崔在錫教授는 同族部落이라는 用語는 部落을 範域으로 하는 同族에 있어서 地緣性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고 하면서, 理論적으로는 한 部落에 存在하는 比較的 多數의 同姓同本の 者가 組織體를 갖거나 적어도 集團의 行動을 취하는 경우에 이 部落을 同族部落이라고 말한다고 그 概念을 規定하고 있다⁵⁾. 前記의 金斗憲과 李萬甲의 동족부락 개념을 절충하는 立場을 취한 것이 崔在錫의 개념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同族部落에 대한 개념의 諸規定은 同族集團을 구성하고 있는 住民의 量과 質 그리고 그 集團의 機能的인 特性에 관한 內容이 主要 指標로 사용된 社會學的인 것들이다.

地域空間을 주요 研究對象으로 하는 地理學의 立場에 있는 吳洪哲은 一個의 姓氏 또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相扶相助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單位空間을 同族部落(聚落)이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다⁶⁾. 同族部落을 起源과 發達過程의 側面으로 研究한 楊普景은 共通性을 지닌 生活單位인 地緣團體로서 生活機能에 同姓同本の 結合과 意識이 影響력을 미치는 範圍의 地域이라 규정하고 있다⁷⁾.

本研究에서는 同族部落의 개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자 있다. 즉, 部落을 形成한 主體인

住民은 共同의 生活空間에 居住하면서 同姓同本人 血緣的인 共通性을 가지면서, 部落의 諸生活에 支配的인 影響력을 발휘하고, 同祖意識을 갖고 있으며, 祖上의 祭祀와 同族間의 相扶相助를 위한 組織을 갖고 集團行動을 취하며, 그 部落에는 祖先의 祭祀를 위한 共同의 有形的인 施設이 있고 無形的인 共同行事가 행해지는 部落의 경우를 同族部落이라 규정한다. 同族部落을 形成하는 影響력 있는 血緣集團은 반드시 一個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同族集團과 地域이 結合된 聚落을 同族部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同族部落의 類型

全南地方에서는 同族部落을 自作一村이라 부른다. 즉 單姓의 同族集團으로 形成된 村落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血緣과 地緣이 結合된 村落을 同族部落이라고 通稱하고 있으나, 同意異稱의 것도 많다. 예를 들면, 氏族部落⁸⁾, 同族聚落⁹⁾, 同姓部落¹⁰⁾, 集姓村落¹¹⁾, 同族村落¹²⁾, 同族村¹³⁾ 등이 있다. 韓國의 同族部落에 관한 研究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社會學分野에서는 同族部落으로 通稱하고 있으며, 다만 人類學과 地理學分野에서 同族部落이라는 呼稱에 대하여 理由있는 약간의 低抗이 있다. 그러나 韓國의 同族部落에 대한 概念規定을 確實하게 하려면 많은 用語의 混用보다는 單一用語의 通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同族部落의 類型 分類도 指標의 選擇에 의해서 매우 多樣하다. 同族部落의 構成分子인 同族集團의 量에 의해서 分類하면, ① 部落에 單姓의 同族만이 居住하는 部落, ② 部落에 單姓이 대부분이고 약간의 他姓이 混居하는 部落, ③ 二姓이상의 동족이 비슷한 세력으로 한 部落에 거

4) 李萬甲外, 1963, 韓國農村家族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pp. 169-171.

5) 崔在錫, 1975, 韓國農村社會研究, 一志社, pp. 196-197.

6) 吳洪哲, 1980, 聚落地理學, 敎學社, p. 140.

7) 楊普景, 1980, “半月面 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地理學論叢, 第7號, p. 30.

8) 金宅圭, 1979,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一潮閣.

9) 吳洪哲, 1980, 聚落地理學, 敎學社.

10) 金宅圭, 1979, 前揭書, p. 324.

11) 中央日報, 1982~1983, 集姓村落連載.

12) 高承濟, 1977, 韓國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pp. 254-267.

13) 문교부, 1979, 국토지리, 교사용지도서, pp. 183-184.

주하는 경우, ④ 部落에 他姓이 半數內外이고, 同族의 數도 역시 半數內外인 混姓部落인 경우 등이 있다. 血緣的 地緣의 共同體로 住民들이 認識하는 部落이 ① 單一同族部落인 경우와 ② 몇 개의 地域에 分散된 複數同族部落으로도 分類할 수 있다. 全南 和順郡 道谷面 月谷里(달아실) 一區에 濟州梁氏가 50戶 居住하는 同族部落이 있는데, 여기에서 分家하여 二區에 30戶, 三區에 20戶, 孝山里二區에 20戶의 梁氏 同族部落이 形成되어 있다. 이 경우는 複數同族部落에 해당된다.

居住의 永續性에 의해서¹⁴⁾ ①始祖以來 그 지방에 定住하여 온 경우 그 姓氏의 本貫과 그 地名이 同一한 同族部落과 ②始祖發生地, 즉 本貫의 地를 떠나서 他地에 定住하면서 形成된 同族部落으로 나눌 수 있다. 前者를 土班이라 하고, 後者를 客班이라 칭하고 있다. 現在 全南의 長興郡內에는 土班으로서 魏氏·任氏·馬氏가 있고, 客班으로서 靈光 金氏·水原 白氏·靈光 丁氏가 있다.

同族部落의 開祖가 內國人인 경우와 外國人이 歸化하여 開祖가 된 경우도 있다. 前者를 ① 內國人 同族部落이라 하고, 後者를 ② 歸化人 同族部落이라 分類할 수 있다. 後者의 例로는 全南 海南郡 山二面 皇朝里에 71戶의 廣東 陳氏 同族部落이 있는데, 이 部落의 開祖는 丁酉再亂 때 援軍으로 온 明의 水師提督인 陳磷의 曾孫인 陳碩文으로 되어 있다.

同姓同本の 世帶數와 門中 組織의 한 表現인 祭閣의 有無를 基準으로 하여 ① 部落의 全世帶數中 同姓同本の 世帶가 過半數를 넘고 祭閣이 있는 部落, ② 過半數가 넘되 祭閣이 없는 部落, ③ 世帶主의 數가 過半數는 못되나 1/3 以上이 되고 祭閣이 있는 部落 ④ 世帶主가 1/3 以下이면서 祭閣이 있는 部落으로 分類하는 경우¹⁵⁾도 있다.

同族部落의 立地와 地勢에 의해서¹⁶⁾ ① 山麓

同族部落, ② 山陰동족부락, ③ 背山臨流 동족부락, ④ 溪谷동족부락, ⑤ 丘陵동족부락, ⑥ 平野동족부락, ⑦ 盆地동족부락, ⑧ 沿河동족부락 ⑨ 臨海동족부락, ⑩ 沿道동족부락으로 分類하고 있으나 지극히 平面的인 分類에 속하는 경우이다.

同族部落의 發生年代에 의해서¹⁷⁾ ① 500年 이상된 동족부락, ② 500~300년된 동족부락 ③ 300~100년된 동족부락, ④ 100년미만된 동족부락으로도 分類할 수 있다.

同族部落을 形態에 의해서나, 機能에 의해서 類型을 分類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가장 바람직한 分類는 동족부락에 居住하는 血緣集團의 大小, 또는 同族集團의 共同行事를 위한 組織 및 施設의 有無를 指標로 택하는 경우라 생각된다.

3. 全南地方 同族部落의 發生과 立地

(1) 同族部落 發生年代

모든 同族部落의 發生年代를 調査하기는 매우 어려운 作業이므로 善生永助氏의 資料¹⁸⁾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¹⁹⁾ 그리고 筆者가 직접 조사한 13個의 同族部落의 資料를 利用하여 考察하려고 한다.

善生永助는 1930年에 各道에 照會하여 著名 同族部落 1685個의 發生年代를 調査한바 있다. 이 가운데서 全南地方의 著名 同族部落 發生年代에 관한 資料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500年以上은 31個部落, 500~300年前은 101個部落, 300~100年前은 52個部落, 100년미만은 1個部落, 發生年代 不明이 53個部落으로 되어 있다. 同族部落의 全數調査는 아니지만, 部落이 300年以上에서 500年未滿 사이에 發生한 것이 101個로 全體의 약 42%를 占하고 있다.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羅南道篇)에 의

14) 金斗憲, 1980, 前掲書, pp. 109-110.

15) 李光奎, 1969, 韓國民俗綜合報告書(全南篇), 文化公報部, p. 51.

16) 善生永助, 1935, 前掲書, pp. 343-345.

17) 善生永助, 1935, 前掲書, pp. 216-218.

18) 善生永助, 1935, 朝鮮의 聚落, 後篇, 朝鮮總督府, pp. 215-253.

19)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1969,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pp. 51-84.

하면 調査에 應한 2636 個部落 중에서 同族部落이 56.5% 인 1491 個部落으로 되어 있다. 全南地方의 同族部落 중에서 發生年代가 알려진 955 個部落에서 年代別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00 年미만은 36 個部落, 100 年~300 年미만은 307 個部落, 300~600 年미만은 487 個部落, 600~1000 年미만은 68 個部落, 1000 年以上은 57 個部落등이다. 여기에서도 300 年前에서 599 年前 사이에 發生한 同族部落이 全體의 51% 를 占하고 있다.

同 期間에 同族部落이 많이 發生하고 發達한 原因에 關해서 考察하려고 한다. 600 年前 또는 1000 年前에 同族部落이 發生했다는 資料는 韓國村落史의 時系列的 變遷에 있어서 근거가 매우 稀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同族部落은 氏族共同體가 殘存한 形態도 아니며, 또한 新羅의 六村도 同族部落의 原形이 아니고, 韓國의 同族部落은 韓國村落의 發展過程에서, 麗末 鮮初에 있어서 社會的 經濟的 變遷에 의한 產物로 생각 된다. 왜냐하면 鮮初에 編纂된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에 등재된 各地方의 土姓은 당시 그 地方의 有力한 姓氏로서, 대부분 同族部落을 形成하였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地方의 有力한 土姓은 身分의으로 上層을 形成하고, 地主로서 地方勢力의 中心을 이루었을 것이며, 同族을 統솔하면서 他氏族을 隸屬시키면서 同族部落을 形成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同族集團의 成員임을 확인하는 資料 中에는 族譜가 있다. 이 族譜의 出現은 同族集團의 組織을 강화하고 同族部落의 發生을 促進하였을 것이다. 族譜의 出現年代는 同族部落의 發生 내지 發達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族譜 自體에서 始刊年代를 찾는다면 朝鮮初期 世宗五年 癸卯年, 즉 1423 年의 文化 柳氏의 永樂譜가 最初의 族譜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15 세기 刊行族譜로는 南陽 洪氏(1454), 安東 權氏(1476), 全義 李氏(1476), 驪岡 閔氏(1478), 昌寧 成氏(1493) 등이 있다²⁰⁾. 그리고 모든 同族이 同

一한 時期에 族譜를 始刊한 것이 아니라, 同族에 따라 그 時期는 15 세기에서 20 세기까지에 걸쳐 있다. 따라서 同族部落의 發生을 15 세기초로 보고 그 以後 계속 發生하고, 그 分布地의 數를 增加시켰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朝鮮時代 燕山君 때부터 시작된 黨爭은 약 360 年間 계속 되었는데, 그 黨爭을 뒤에서 뒷받침해 준 經濟적 기반은 農莊이었고, 黨人의 기반은 同族部落의 同族集團이었다. 즉 貴族들은 所地有를 農莊의 형태로 가지게 되었고, 이들 農莊 所有者들은 대개 서울에 사는 不在地主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官직에 있더라도 그의 同족들은 農莊에 살고 있었으며, 官직에서 물러나면 農莊에 되돌아와 살게 되었다. 이리하여 農莊을 중심으로 한 同族部落이 三南地方에 發達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同族의 結合 강화와 힘의 과시를 위하여 族譜를 만들게 되었다²¹⁾. 黨爭은 同族部落族의 發生과 發達에 關係가 있는 要因의 하나가 된다.

(2) 同族部落의 立地

同族部落의 立地도 그 發生年代 만큼이나 多樣하고 복잡하다. 全南地方의 同族部落 中에서 238 個의 部落立地는 山麓立地가 123 個所(51.7%), 平野立地는 41 個所(17%), 背山臨流의 立地는 25 個所(10.5%), 臨海立地는 14 個所, 丘陵立地 11 個所, 山陰立地는 10 個所, 沿河立地는 8 個所, 沿道立地는 3 個所, 盆地立地는 2 個所, 溪谷立地는 1 個所로 되어 있다²²⁾.

部落의 立地選定에는 風水說의 영향이 많았으며, 따라서 藏風과 得水가 용이한 山麓立地와 背山臨流의 立地가 많다. 平野立地가 많은 것은 全南地方에는 河岸과 海岸에 비교적 넓은 平野가 많기 때문이다. 筆者가 직접 조사한 同族部落의 立地에 關해서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羅州郡 多侍面 會津의 羅州 林氏의 部落은 西쪽에 산을 등지고 東쪽의 榮山江을 向한 山麓立地이다. 羅州郡 茶道面 楓山里的 豐山 洪氏의 部落은 小盆地의 北東쪽에 立地하고 있다.

20) 崔在錫,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 第81輯, 韓國史學會, pp. 42-44.

21) 李弘植, 1973, 國史大事典, 百萬社, pp. 427-429.

22) 善生永助, 1935, 朝鮮의 聚落(後篇), 朝鮮總督府, pp. 344-345.

務安郡 玄慶面 牟村의 務安 朴氏 部落은 낮은 丘陵地에 立地하고 있다. 海南郡 馬山面 山幕里의 原州 李氏 部落은 臨海立地이며, 海南郡 海南邑 蓮洞의 海南 尹氏 部落은 山麓立地이다.

4. 同族部落의 構造와 機能

(1) 同族部落의 有形的 要素

同族部落에 居住하는 同族集團은 同祖意識을 갖고 祖上의 祭祀와 同族間의 相扶相助를 위한 共同的 有形的인 施設을 갖고 있다. 共同的 有形的인 施設로는 宗家, 祠堂, 祭閣, 書院, 茅亭堂, 長姓, 諸碑 및 孝烈閣등이 있다. 다음에서 同族部落의 有形的인 諸構成要素에 관해서 그들의 構造와 機能을 分析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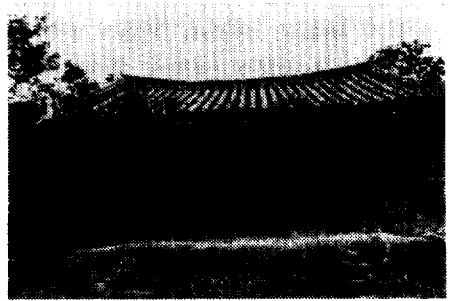
1) 宗家の 構造와 機能

宗家は 同族의 最高祖上의 直系孫으로서 家廟를 지키고 祭祀를 主宰하며, 同族으로부터 尊崇을 받는 집이다. 즉 宗孫의 집을 宗家라 부르고 이 宗家에는 宗祖의 遺靈이 머무는 장소로서 同族이 이것을 尊崇하여 代代로 宗家를 이어 왔다²³⁾. 宗家が 貧困할 때는 同族이 協力하여 이를 扶助하였고, 宗孫이 負債를 입어 그 家宅이나 祭器등이 差押될 때는 宗中財産이나 宗中の 募金에 의하여 이것을 變상하는 것이 과거의 通례였으나, 현재는 協力の 정도가 점차 약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同族部落은 대개 宗家를 中心으로 展開되고, 宗家에는 반드시 祠堂이 附設되어 있다. 全南 羅州郡 多侍面 會津부락을 形成하고 있는 羅州 林氏의 宗家は 宗孫이 起居하는 큰채와 헛간, 그리고 同族을 接待하는 사랑채 및 祖上의 神主를 모시는 祠堂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宗家의 特色 中の 하나는 一般民家에서 사용하지 않는 圓柱를 사용한 점이다. 그리고 五間의 楹집으로 戰後의 林氏 門中에서 建築한 家屋이다. 사랑채는 土石담에 의해서 큰채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앞퇴가 있는 4間의 홀집이고, 이 건물 앞에 수목이 우거진 庭園이 있다.

2) 祠堂의 構造와 機能

祠堂 建築의 共通點은 첫째, 前面에 4개의 圓柱가 있는 3間이며, 둘째는 側面은 1間이고, 셋째, 지붕의 型은 맞배지붕이며 양끝에 朴工널(朴工板)과 防風板이 加設되었고, 넷째는 內部는 三間通의 單室로 구성되었으며, 그 바닥은 대부분 널을 鋪고 있으나, 드물게 흙바닥의 경우도 있다. 다섯째 前退집으로 뒷마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前者는 全南 長興郡 冠山邑 傍村의 長興 魏氏 同族部落에 魏伯珪氏를 모시는 茶山齋의 경우이고, 後者는 일반적으로 많은 구조인데, 全南 和順郡 道谷里의 濟州 梁氏의 同族部落에 있는 祠堂의 경우이다. 여섯째 60cm 內外 높이의 基壇을 쌓고 그 위에 祠堂을 건축하며, 基壇에 올라가는 石階段은 祠堂 前面의 左右에 있는 경우(和順郡 道谷面 月谷里 濟州梁氏의 祠堂) (사진 1)과 中央과 左右에



〈 사진 1 〉 月谷里濟州梁氏祠堂

는 즉 3개의 石階段이 있는 경우(海南郡 山二面 皇朝里의 廣東陳氏 祠堂)와 中央에만 계단이 있는 경우(長興郡 冠山邑 傍村의 茶山齋), 그리고 基壇이 낮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지 않은 경우(夢灘面 大峙里의 利川徐氏의 祠堂) 등이 있다. 일곱째 祠堂의 前面의 3곳에 각각 두짝의 머살문으로 된 당길문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夢灘面 大峙里의 利川徐氏의 祠堂의 것은 中央에 두짝의 骨板門, 左右에 외짝의 骨板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덟째 祠堂 주위에 方形의 담장을 쌓고 正面에 外門을 세운다. 그 外門은 소슬三門(또는 高設三門)으로 만들어진 경우와 單間的 朴공지붕의 外門으로 된 경우가 있

23) 善生永助, 1935, 朝鮮의 聚落(後篇), 朝鮮總督府, pp. 391-392.

다. 아홉째 祠堂과 外門사이에는 아무 건물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祭器와 遺物을 보관하기 위한 廚庫를 만든 경우(羅州郡 多侍面 會津의 羅州林氏 宗家의 祠堂)도 있다.

祠堂은 宗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支孫의 長者가 居住하는 집에도 祠堂을 세우고 父·祖·曾祖·高祖등 4代祖이하의 祖上에 대한 神位를 모시고, 忌祭를 行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支孫의 祠堂은 감소하고 있으며, 5代이상은 墓祭를 行한다. 그러나 例外 없이 宗孫이 居하는 宗家에는 祠堂이 있으며, 따라서 宗家에 있는 同族部落의 祠堂은 部落의 有形的 構成要素의 하나가 된다. 全南 地方에서 祠堂이 없는 長者의 집에서는 마루에 祖上의 神位를 모시고(龕室), 그곳에서 忌祭를 行하는 경우와 紙榜을 사용하여 忌祭를 行하는 집이 있다.

祠堂은 4代祖이하의 神主를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祖上 중에 著名한 人物을 모시는 祠堂도 있다.

3) 齋閣의 構造와 機能

齋閣은 祭祀를 지내기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일반적으로 學問·德行·忠義등 국가에 功이 많은 同族의 人物, 또는 同族의 顯祖를 追慕하기 위하여 1년에 1回以上 子孫들이 모여 祭祀를 行한다. 祭祀를 行하기 위한 準備의 同族集會所 및 會食의 장소로도 使用된다. 祭閣 또는 墓閣이라 부르기도 한다. 墓閣은 先山이 있는 곳에 세우기 때문에 同族部落에 없는 경우도 있다. 全南 和順郡 寒泉面 政里에 있는 綾城具氏의 同族部

落 뒷산에 先墓가 있고, 部落의 前面에는 始祖墓가 있으며, 그 옆에 齋閣인 永墓齋가 있다(사진 2).

全南 長興郡에는 齋閣이 118個所 있는데 그 중에서 追慕齋가 12個所, 永慕齋가 10個所, 追遠齋가 8個所, 敬慕齋가 2個所, 永孝齋가 2個所, 永思齋가 2個所등으로 祖上을 영구히 사모한다는 내용의 名稱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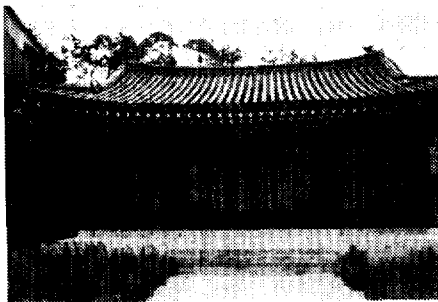
齋閣은 同族의 社會的 威勢表示의 하나인 物的 施設이기 때문에 一般의 民家에 비해서 規模가 크고 宮闈이나 寺刹 建築 같이 圓柱를 使用한다. 대개 前面은 4~5間이고, 側面은 2間정도이다. 同族의 集會所·會食의 장소·墓祭의 準備 장소로 使用되기 때문에 3~4間의 넓은 마루가 있고, 일부에 취침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長興郡 冠山邑 傍村에 있는 長興魏氏의 齋閣으로 長川齋가 있고, 海南郡 馬山面 山幕里의 原州李氏의 同族部落에 慕思齋가 있다. 대부분 先山과 隣接한 同族部落에는 齋閣 또는 祭閣이 세워져 있다. 長興郡 安良面 鶴松里의 長興馬氏 同族部落은 先山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墓閣으로서 景慕齋·竹窓齋·慕省齋·松坡齋·追遠齋 등이 있다.

4) 書院의 構造와 機能

朝鮮時代 중기부터 보급된 민간의 私學機關인 書院은 先賢을 제사하는 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齋가 합하여 설립된 것이다. 朝鮮朝는 건국 초부터 유교중심 정책을 써서 고려의 寺院을 대신하여 書齋·書堂·精舍·先賢祠등을 장려하였다. 1542년(중종 37) 풍기군수 周世鵬이 順興에 다 고려의 유학자 安珦을 모시는 祠堂을 짓고 白雲洞書院이라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書院이 되었으며, 明宗(1550년)은 紹修書院이라는 扁額을 하사하시고 책·노비·田結등을 주어 장려하였다. 이것이 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다²⁴⁾.

同族部落內와 그 附近에 書院이 있는 경우도 많다. 대개의 경우 이 書院은 所在地의 一族뿐만 아니라, 그 地方의 儒林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사진 2〉 綾城具氏의 永墓齋

24) 李弘植編, 1973, 國史大事典, 百萬社, p. 766.



〈사진 3〉 月谷里 濟州梁氏부락의 竹樹書院

있다. 同族의 祖上중에 碩儒賢臣이 있거나, 또는 同族과 관계가 깊은 著名人物을 追慕하고 報謝하기 위해서 遺靈을 享祀하고, 子弟를 모아 經典과 道義를 講習하기 위해서 部落內에 書院을 세운 경우도 있다. 全南 和順郡 道谷面 月谷里의 濟州梁氏 同族部落에 竹樹書院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同族인 學圃 梁彭孫과 靜庵趙光祖를 享祀한다(사진 3).

5) 亭閣과 茅亭의 構造와 機能

亭閣은 同族集團의 威勢를 나타내는 施設物의 하나인데, 모든 同族部落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班村의 同族部落에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同族의 社會的 威勢를 높여주는 役割을 하는 建築物이기 때문에, 圓柱를 사용하였고 그 規模는 3~5間이며, 대개 八作지붕의 기와지붕이며, 취침용 방이 附設된 넓은 마루와, 방이 없이 通間으로 된 하나의 널마루로 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亭閣의 주변은 造景이 잘 되었고, 그 위치는 동산 위나 산록에 있는 경우가 많다.

全南 羅州郡 茶道面 楓山里에 있는 豊山洪氏의 同族部落에는 亭閣이 두개 있는데, 部落의 뒷산 산록 松林사이에 있는 溪隱亭은 여름에 門中 老人의 휴식처로 쓰이고, 部落 가운데 있는 漾碧亭은 祖上중에서 10世 洪澄과 11世 洪民堉의 位牌를 모시는 장소로 사용되는 외에, 또한 음력 1月 3일에 共同歲拜의 장소로, 음력 4月 10日には 門會의 장소로 사용되고, 평상시는 老人의 휴식처로 사용된다.

全南 長城郡 黃龍面 黃龍里에 있는 光山金氏

의 同族部落에 있는 邀月亭은 그 이름 그대로 部落의 동쪽에 있는 동산 위에 세워져서 달맞이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邀月亭의 前方에는 黃龍江이 흐르고 넓은 들이 전개되며, 바로 밑에는 舊河道의 공격면이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연못이 형성되었고 주변의 風致가 매우 수려하다. 평상시는 村老의 휴식처, 음력 3月과 음력 10월에 열리는 門會의 장소, 또 外來客의 留宿장소로 사용된다. 또 여기에는 著名한 分의 詩句가 쓰여 있는 懸板이 많이 걸려 있다.

羅州郡 多侍面 會津에 있는 羅州林氏의 同族部落에는 榮山江이 내려다 보이는 동산의 사면에 永慕亭을 만들어 놓았다. 평상시는 개방치 않고 음력 10月 1일에 門會를 하는 장소로 사용한다(사진 4).

亭閣은 班村의 성격을 띠는 同族部落에만 있으나, 茅亭은 同族部落은 물론 非同族部落에도 있는 建築物이다. 部落의 入口 또는 부락과 耕地사이에 通風이 잘되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位置하며 그 分布는 全南北地方에 限定되기 때문에 湖南地方을 茅亭文化圈이라 부를 수도 있다.



〈사진 4〉 會津 羅州林氏부락에 있는 永慕亭

全北地方에서는 대부분 茅亭이라 부르고, 全北의 西南部와 全南의 西北部에서는 詩亭이라 부르고, 대부분의 全南地方에서는 우산각이라 부른다. 기타의 呼稱으로는 農亭·農廳·涼廳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그림 1).

茅亭의 建築物로서 특징은 첫째 高床式의 벽이 없는 開放된 건물이고, 둘째 벗짚지붕의 경우는 例外없이 우진각지붕이며, 기와지붕의 경우는 八作이나 맛배지붕이다. 셋째 前面이 3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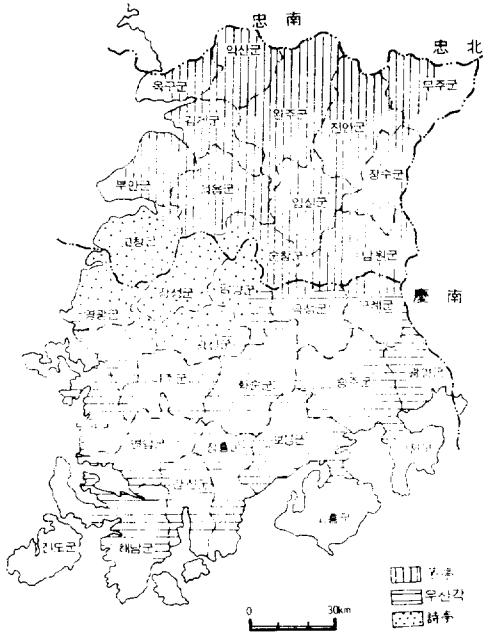


그림 1 茅亭의 呼稱 分布圖(朴光淳氏의 原圖를 修正한 것임)

側面이 2間으로 된 構造가 가장 많고, 前面 2間, 側面 2間의 方形平面도 있으며, 또한 前面 2間, 側面 1間의 것도 있다. 가장 작은 규모로는 前面 1間, 側面 1間의 것도 있으나, 이 경우는 기능상으로 보면 茅亭이라기 보다는 새막 또는 원두막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同族部落에는 建築年代가 오래된 茅亭이 많고, 非同族部落에는 最近에 건축된 茅亭이 많으며, 山間地帶보다는 平野地帶에 모정이 많고, 島嶼海岸地方보다 內陸地方에 많으며, 즉 田作地帶 보다는 畚作地帶에 많이 分布하고 있다²⁵⁾.

茅亭은 夏節에 休息을 취하고 더위를 피하는 곳이며, 共同의 農作業을 하는 경우 일꾼을 얻고 農事情報의 교환장소로, 部落의 集會所로 사용된다. 亭閣은 地主階級 또는 宗中の 老人들이 詩歌와 文章을 즐기고 休息을 취하는 建物이라면, 茅亭은 小農民들이 休息을 취하는 建築物로 마련된 것이다.

和順郡 道谷面 月谷里의 濟州梁氏 同族部落과 羅州郡 茶道面 楓山里의 豐山洪氏의 同族部落에는 農耕地와 部落의 境界되는 곳에 茅亭이 있다.

6) 部落祭에 관한 諸施設의 構造와 機能

全南地方의 대부분의 同族部落에서는 部落祭를 지내고 있으나, 例外的으로 部落祭를 지내지 않는 곳도 있다. 和順郡 道谷面 月谷里의 濟州梁氏 部落에서는 部落祭를 지내지 않고 있다.

全南地方에서는 部落祭를 地域에 따라 堂山祭·洞祭·村祭·山祭·洞神祭·堂祭·土地祭라고 부른다. 祭神은 洞神·山神·堂山神·都堂神·堂山할머니·堂山土地之神·木神·天神·守護神등으로 불리우고 있다²⁶⁾. 部落祭의 祭神이 되는 對象은 堂山樹(神木)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同族部落의 入口와 內部에 老巨樹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神木의 樹齡 자체가 部落의 歷史를 증명하기도 한다. 樹齡은 대략 300年 이상의 것이 많다. 神木의 樹種으로는 느티나무·팽나무가 가장 많고, 은행나무·소나무도 약간 있다. 部落祭는 음력 1月 15日에 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部落의 守護神인 祭神에게 惡疫의 流行을 막아 주고, 邪鬼를 물리치며, 洞民의 吉福과 豐作을 이루도록 祈願한다. 部落祭에는 血族을 超越하여 參加하며, 또한 部落祭는 洞民의 親睦과 協同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機能을 발휘한다.

務安郡 玄慶面 牟村의 務安朴氏가 많이 居住하는 同族部落에서는 높이 130cm의 4角錐의 堂山碑(立石) 2개를 祭神으로 하여 음력 2月 1日에 堂山祭를 지내고 있다. 堂山祭는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남녀 모두 참가해서 줄다리를 한다. 줄다리가 끝나면 그 줄을 할아버지와 할머니 堂산에 칭칭 감는데 이것을 堂山 옷 입히기라고 한다. 務安郡 夢灘面 大峙里에 있는 利川徐氏의 同族部落에서는 部落祭를 지내지 않으나 洞口에 있는 巨樹인 느티나무 밑에 선돌(立石)이 2개 있는데, 그것이 部落의 守護神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지만 往年에는 대

25) 崔在律, 1966, “茅亭이 農村社會經濟에 미친 影響,” 湖南文化研究, 4輯, pp. 22-24.

26) 村山智順, 1937, 部落祭, 調查資料 44輯, 朝鮮總督府, pp. 128-141.

개 어느 部落에서나 堂山神의 下位神으로 長旌이 있었고, 대부분 음력 正月 15일에 長旌祭를 지냈었다. 長旌은 同族部落에만 建立되는 것이 아니고 韓國의 모든 部落에 入口의 標識, 또는 部落의 境界 標識으로 세워졌다. 장승은 材料에 의해서 木장승과 石장승으로 分類되며, 全南地方에는 木장승과 石장승이 모두 殘存하고 있다. 장승은 대부분 마을 入口에 장승 1雙을 나란히 같이 세우는 경우와 1雙(男·女)을 도로 양편에 마주보고 세우는 경우가 있다. 後者の 경우는 東쪽에 女장승, 西쪽에 男장승을 세운다. 그 예로는 長興郡 冠山邑 傍村의 魏氏가 많이 거주하고 同族部落의 北쪽 洞口的 길 양편에 높이 약 250cm의 花崗岩 石장승이 세워져 있는데, 西쪽의 男장승에는 “鎮西大將軍”, 東쪽의 女장승에는 “鎮東大將軍”이라는 刻字가 있다. 刻字의 內容으로 보아 部落의 守護神으로 세워짐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部落의 守護神으로 세워진 경우는 里程의 記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務安郡 夢灘面 大峙里의 徐氏가 많이 거주하는 同族部落 西쪽 入口에도 길 양편에 石장승이 세워져 있다.

海南郡 馬山面 山幕里의 原州李氏 同族部落에는 東쪽 洞구에 “東方守衛”라고 刻字된 石碑가 세워졌고, 西쪽 洞구에는 원래 장승이 세워졌었으나 지금은 없었졌고, 그 자리에 “原州李氏山幕古庄”이라고 刻字된 石碑가 세워졌고, 北쪽의 海岸에는 숫대(住民들은 짐대라 부름)를 세워 그 部落의 境界를 表示하고, 또한 守護神으로 祭를 지낸다. 村落의 生活空間의 基礎地域을 行政區域의 「里」로 限定한 研究²⁷⁾가 있는데, 보다 많은 部落의 境界에 관한 研究가 追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江原道의 山地에서 里의 面積이 平野部의 面積보다 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里를 村落의 基礎地域으로 간주하기에는 곤란한 경우도 있다. 장승·立石·숫대들은 部落의 入口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部落에 境界를 設定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指標가 된다고 생각한다.

7) 碑 및 孝烈閣

27) 洪殷男, 1982, 同族村의 基礎地域構造, 誠信女大 碩士學位論文.

28) 崔在錫, 1975, 韓國農村社會研究, 一志社, pp.197-198.

모든 同族部落에는 祖先의 追慕碑나 孝烈閣이 建立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祖先中에 忠臣·孝子·孝婦·烈女등이 있었을 때는 記錄에도 남겨두지만, 對外的으로는 同族集團의 社會的 地位를 誇示하기 위해서, 또는 對內的으로는 同族의 教化를 위해서 部落의 入口 또는 內部的 物的 施設로서 碑와 旌閣을 建立한 同族部落이 많다.

務安郡 玄慶面 牟村의 同族部落은 務安朴氏 159戶와 他姓(徐·丁·洪氏) 3戶로 構成되어 있는데, 部落內에 孝烈閣이 2個所, 孝烈碑 1個, 學德이 높은 同族의 追慕碑가 3個, 孝行碑 1個, 奇蹟을 刻字한 碑가 1個 등이 建立되어 있다. 和順郡 道谷面 月谷里의 濟州梁氏 同族部落 入口에는 孝子閣이 建立되어 있으며, 그 안의 懸板에 “教旨故成均進士梁渭南之間”라 쓰여 있다. 和順郡 寒泉面 政里 綾城具氏의 同族部落 南쪽 入口에 3間의 忠孝閣이 숲속에 묻혀 있다. 務安郡 夢灘面 大峙里의 利川徐氏의 同族部落에는 部落 守護神인 立石이 있는 근처에 烈女門(사진 5)이 있다. 同族部落에 있는 旌閣은 오랫동안 補修를 하지 않아서 丹青은 모두 退色되었고, 倒壞 직전의 것도 많아 今昔의 큰 차이를 느끼게 하고 있다.



〈사진 5〉 務安郡 夢灘面 大峙里 利川徐氏의 烈女門

(2) 同族部落의 無形的 要素

同族部落은 部落을 範域으로 하는 同族에 있어서 地域性을 強調할 때 사용되며, 한 부락에 存在하는 비교적 多數의 同姓同本の 者가 組織體를 갖거나 集團的 行動을 취하는 경우에 同族部落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여기서는 同族部落의 無形的 要素인 同族間의 諸 組織과 그 機能 및 部落내에서 行하여 지는 共同行事に 關해서 간단히 考察하려고 한다.

1) 門中の 組織과 그 機能

同族이 한개의 部落내지 한地域에 部落을 形成하고 集團生活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同族間에는 반드시 同族의 團體가 組織되어 있다. 이 同族의 集團을 宗中 또는 門中이라 부른다. 全南地方에서는 대부분 門中이라 부른다. 門中에는 대략 비슷한 宗規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주로 同族의 團結과 祖上의 祭祀를 目的으로 하는 매우 圓滑한 統制가 行해진다. 그러나 門中の 規約이 不文律로 된 경우도 많다. 門中은 어떤 범위에 국한된 血族集團이며, 同姓同本의 同族과는 다르다. 同姓同本의 一族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門中을 構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門中이란 것은 역시 일정한 血族사이에 意識의 由로 構成되는 일종의 社會集團이다²⁹⁾.

宗中(門中)의 構成員은 주로 同一한 部落에 거주하는 近親者들이며, 宗中の 加入 및 脫退가 運命的이며, 宗中の 主要機能은 先祖의 祭祀 및 同族間의 親睦이다.

門中에는 宗孫外에 門長(또는 宗長)이 있는데, 이는 同族集團의 長으로서 門中の 管理事務를 맡고 있는 責任者이다. 門長의 選任方法은 門中에 따라 다르나, 全南地方에서는 대개 行列이 높고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가운데서 選任한다.

門長 아래에 有司 또는 都有司를 두고, 門長을 補佐하게 하며, 事務를 執行한다. 또 都有司 밑에 門任을 두고 都有司를 보좌하는 部落도 많다. 羅州郡 多侍面 會津의 羅州林氏의 部落에서는 40年前에 門長制度를 폐지하고, 현재는 都有司가 門長을 겸하고 있다. 나주군 多侍面 楓山里的 豐山洪氏의 部落에서는 門長과 都有司가 모두 이웃 面인 鳳凰面으로 分家해서 居住하는 경우도 있다. 門長이 宗務를 행하는 경우, 時享祭·位土管理·財政問題·共同施設 및 그 修築問題 등은 門會를 열고 議決한다. 門會는 每年 時享祭를 전후하여 召集하는 門中이 가장 많다.

2) 門中財產

門中에는 門中の 共同事業을 하기 위한 多少의 財產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門中에서 所有한 山林을 宗山, 田畓을 宗土·位土·宗田·宗畓이라 稱하며, 祭祀費用을 支出하기 위해서 設定된 것은 祭位田·祭位畓이라 하고, 墓地管理를 위해서 設定된 것은 墓田·墓畓이라 하며, 子弟教育을 위해서 設定된 것은 學田·齋畓이라 하며, 婚喪 또는 同族扶助를 目的으로 設定된 것은 義庄이라 부른다. 즉 使用 目的에 의해서 여러가지 名目이 붙혀진 財產이 있고, 이 가운데는 金錢을 基本財產으로 해서 貯蓄을 한 경우도 있다³⁰⁾.

全南地方에서 調査한 9個 同族部落 門中財產에 關해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宗山은 300町(羅州郡 多侍面 會津의 羅州林氏 部落의 경우)에서 12町(海南郡 山二面 皇朝里 廣東陳氏 部落의 경우)에 이르기 까지, 그 면적이 매우 다양하나 平均 面積은 약 105町이다. 비교적 넓은 宗山이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理由는 대부분의 同族集團은 祖上의 墓가 있는 先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祖上의 祭祀費用과 기타 經費를 마련하기 위한 位土는 田畓을 합해서 90斗落(海南郡 馬山面 山幕里 原州李氏 部落)에서 10斗落(務安郡 夢灘面 大峙里 利川徐氏의 部落)에 이르기까지 그 面積은 다양하나, 平均面積은 약 55斗落이다. 대부분의 同族集團은 位土의 面積이 解放直後의 農地改革으로 因해서 크게 감소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和順郡의 寒泉面 政里에 있는 綾城具氏의 部落에는 宗山 200町과, 位土로 畓 30斗落, 田 50斗落을 所有한 外에, 學田 5斗落을 갖고 있다.

農村에 있어서 젊은層 人口의 계속적인 감소로 位土의 代理耕作도 점차로 어려워지고, 小作料도 25%에서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海南郡 山二面 皇朝里 廣東陳氏의 部落에서는 門中에서 位土의 耕作 順序를 定하고, 해마다 돌려 가면서 耕作하는 경우도 있었다.

3) 門中の 各種 契

同族部落 內에는 同族으로 形成된 各種의 契가 組織되어 있으며, 그 契의 종류를 目的에 따

29) 金斗憲, 1980,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pp. 90-91.

30) 善生永助, 1935, 朝鮮의 聚落(後篇), 朝鮮總督府, pp. 413-414.

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祖上의 祭祀(時享祭) 費用을 마련하고 또한 祭祀 및 墓地와 관련된 諸施設의 設置費와 補修費를 마련하기 위한 門中契(또는 宗契)가 있다. 海南郡 馬山面 山幕里의 原州李氏들은 祖先의 祭祀와 친목을 目的으로 芳園契를 組織하고 每年 음력 3月 15日에 모인다. 契의 基本資産에서 增殖된 일부를 祭祀費用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同族間의 親睦을 위한 行事 및 飲食代로 지출된다. 유사한 契로 門契(務安郡 夢灘面 大峙里의 利川徐氏 部落)가 있다.

둘째는, 同族의 生活를 向上시키고, 同族子弟의 教育을 獎勵하는 등 共同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契로서 大同契(長興郡 冠山邑 傍村의 長興魏氏 부락), 洞契(羅州郡 茶道面 楓山里的 豊山洪氏 부락), 村契(務安郡 玄慶面 牟村의 務安朴氏 부락)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全南地方의 同族集團에서의 大同契는 多目的을 갖는 契이고, 出現頻도가 가장 많은 契이다. 契의 基本資産은 不動産으로는 農耕地와 林野, 動産으로는 現金 등이며, 여기에서 增殖된 資産을 共同事業費로 사용한다. 同族 子弟의 教育을 獎勵하기 위해서 組織된 契로서 育英契(傍村의 長興魏氏 부락)· 獎學契(山幕里의 原州李氏 부락) 등이 있으며, 현재는 「契」라는 名稱보다는 「會」라 부르고 있다.

셋째는 同族의 哀慶事時에 相扶相助를 目的으로 하는 喪輔契(多侍面 會津의 羅州林氏 부락), 喪布契(寒泉面 政里의 綾城具氏 부락), 婚喪契, 爲親契, 冠婚契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契組織이 弱화되고 있으며, 그 資産도 감소하고, 契를 통한 事業도 축소되고 있다.

위와 같이 契가 활발하지 못하게 된 理由는, 첫째 종래는 同族部落 중심의 自給自足 經濟였고, 同族集團 밖으로부터 援助를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國家로 부터 住民의 生活向上을 위한 각종 事業의 支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契보다 안전한 金融機關이 農村地域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셋째는 離農으로 인한 同族集團 構成員의 減少를 들 수 있다. 끝으로 同族間의 相扶相助 精神의 弱화로 인한 個人主義의 思考 및 祖上崇拜의 觀念의 弱화 등을 들 수

있다.

4) 同族部落의 共同行事

同族部落內에서 同族集團이 行하는 共同行事로는 祖上의 祭祀, 哀慶事의 扶助, 生産을 위한 協同 등이 있다.

① 祖上의 祭祀——門中の 最大 行事는 祖上의 祭祀이며, 同族集團의 團結 中心도 역시 祭祀이고, 同族部落은 그 行事의 空間的 中心이 된다. 門中の 大祭를 時享이라 부르며, 每年 1회씩 祖上의 山所에서 지낸다. 時享祭의 時期는 同族集團에 따라 다르나, 대략 가을과 봄의 어느 한 날을 정하고 있다.

羅州郡 多侍面 會津의 羅州林氏는 음력 10月 1日에, 茶道面 楓山里的 豊山洪氏는 음력 9月 24日에 時享祭를 지내며 務安郡 玄慶面 牟村의 務安朴氏는 春(음력 3月) 秋(음력 9月)의 時享祭를 지내고 있다.

堂山祭는 동족부락에 거주하는 同族集團과 非同族集團이 함께 모여 共同行事로 진행한다.

② 哀慶事의 扶助——同族部落에서 婚禮 및 葬禮와 같은 慶弔을 당할 때는, 同族이 모여서 儀式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마를 비롯한 婚具는 부락의 공동창고에 보관하는 경우(寒泉面 政里 綾城具氏)와 부락의 有司집이나 有志의 집에 보관된 것을 빌려다 사용하였다(玄慶面 務安朴氏). 그러나 농촌에도 新式 婚禮가 보급됨에 따라 점차로 전통적인 婚具는 사라지고 있다. 喪輿도 과거에는 부락에 喪輿庫가 있어서 보관하고, 葬禮時에 빌려다 사용했다. 현재는 주로 종이로 만든 꽃상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婚葬의 用具는 대개 同族部落 共有의 것이었다.

寒泉面 政里의 綾城具氏의 부락에서는 어느 同族의 가정에서 喪을 당하면, 온 部落民은 殞命에서 出喪까지, 대개 3일간 모든 일을 멈추고 喪家에 弔意를 표하고 喪家에 모여서 大事를 치른다. 婚禮時에는 하루동안 部落民은 休務하고 慶祝하면서, 現金 또는 선물을 그 집에 보내고, 부인들은 그 집에서 음식준비와 손님접대의 일을 돕는다.

③ 生産을 위한 協同——모내기 때는 同族間에 품앗이를 한다. 그러나 요즘은 농촌의 일

손 부족으로 非同族員과도 같이 품앗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경운기 및 移秧機의 보급으로 점차 품앗이는 사라지고 있다.

지붕의 材料를 改良하기 前에는 벗짚 지붕의 지붕이는 作業은 大개 部落民 共同으로 행하였다. 馬山面 山幕里의 原州李氏 부락에서는 현재도 농업노동의 품앗이와 지붕개량작업의 공동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山二面 皇朝里의 廣東陳氏 부락에서는 해태양식, 굴양식, 낙지잡이등을 部落民의 協同作業으로 행하고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동족부락에서 농업생산을 위한 同族끼리의 共同組織이 사라지고, 대신 同族員 내지 非同族의 勞動力을 현금을 주고 購買하고 있다.

5. 同族部落의 解體

500~600年前에 同族部落을 發生시켰던 社會的 經濟的 諸與件은 現時點에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變遷되었다. 따라서 同族部落의 形成과 發達에 있어서도 時代의 與件 變化에 의해서 同族部落의 構造와 機能이 強化된 時期도 있었으나, 현재는 이미 동족부락의 發生·發達의 原因 중에서 消滅된 것이 많으며, 계속 그 원인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동족부락은 그 구조와 기능이 弱화 내지 解體의 過程에 있다.

同族部落의 解體要因과 解體現象에 관해서 考察하려고 한다.

첫째 高麗·朝鮮時代를 통해서 土地制度가 不備하여 大官豪族이 넓은 私田을 占有하고, 그 地方에서 割據하면서 一族의 繁榮을 助長해 왔으나, 日本은 韓國을 強占한 직후 土地調査事業을 실시하여, 從前의 封建的 土地所有形態는 거의 解體되고 近代의 私有權이 確立되었다. 해방후 政府樹立후인 1949년에 시행한 農地改革에 의해서, 대부분의 小作人이 영세농이기는 하나 自作農으로 變하였고, 반대로 宗土는 3町步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同族部落에서 求心の 역할을 하던 地主層은 몰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現象은 同族部落의 弱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朝鮮時代 末까지 兩班이 賤民을 所有하고 이들로 하여금 農耕 및 家事에 勞役케하여

同族部落의 發展을 도울 수 있었으나, 1894年의 甲午更張으로 公私奴婢의 文書를 없애고 人身賣買를 금하게 되었다. 同族部落에는 同族員이외에 많은 殘民의 非同族員이 있었으나, 해방전에 이들은 동족부락을 自由로히 떠나서 日本·滿州 등지로 갔으며, 또한 工業이 發達된 都市로 移住하였다. 勞動力을 착취할 수 있었던 奴婢의 급격한 감소는 同族部落의 解體에 중요한 作用을 하였다. 현재 全南地方의 同族部落에는 殘民階級の 後孫으로서 他姓을 갖는 非同族員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他姓 非同族員으로서 동족부락에 居住하는 住民은 同族員의 女性과 婚姻이 인연이 된 경우이며, 그 數는 매우 적다. 身分階層制 社會에서 發達되었던 同族部落은 階級的 支配社會로 移行되면서 동족부락은 解體를 계속하고 있으며, 동족부락은 外殼만 있을 뿐 그 機能은 弱化되고 있다.

셋째, 朝鮮時代에 盛行하였던 儒敎의 영향으로, 祖上崇拜의 思想은 宗家와 祠堂, 齋閣, 墓地를 中心으로 同族의 團合과 親睦을 도모하였으며, 基督教文化의 傳來와 普及으로 同族部落의 宗孫과 門長을 중심으로한 同族의 求心の 機能이 弱化되고 있다. 祖上에 관한 記錄인 族譜의 發刊 및 修譜事業에 대한 同族員의 關心이 희박해 지고 있다. 과거에 族譜는 同族集團의 結合을 強化하고, 同族部落의 發達을 促進시키는 作用을 했었다.

넷째, 黨爭이 오랫동안 계속되던 社會에서 黨爭의 主役들은 三南地方에 農莊을 중심으로 同族部落을 발달시켰고, 동족부락을 黨爭의 물질적 토대로 삼았고 同族의 派黨의 結合을 굳게하는 곳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동족부락의 上記와 같은 機能은 消滅되었으며, 따라서 동족부락 解體의 原因의 하나를 위와 같은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섯째, 韓半島에 있어서 商工業의 발달로 都市가 發達하고, 農村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은 同族部落에서 同族員의 戶數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1960年代 이후는 동족부락에서 20~30代의 젊은 世帶의 감소가 현저하다. 이것 또한 同族部落의 生産力과 經濟力을 弱화시키는 것으로서 同族部落의 解體現象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長興郡 冠山邑 傍村에 있는 長興魏氏의 전통이 있는 유명한 同族部落에는 魏氏가 142戶, 他姓이 12戶(李, 任, 白, 張, 康, 朴, 崔, 鄭) 모두 154戶(1982年 8月 現在) 居住하는데, 戶主를 年齡別로 보면 30代의 戶主가 11戶(7%), 40代의 戶主는 14戶(9%), 50代 이상의 戶主가 129戶(84%)로 住民의 高齡化를 直感할 수 있다. 젊은 年齡層의 同族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50代以上の 同族部落 居住者가 死亡한 후에는 前과같은 同族部落은 消滅되고 새로운 部落의 構造와 機能을 갖는 韓國의 村落으로 變容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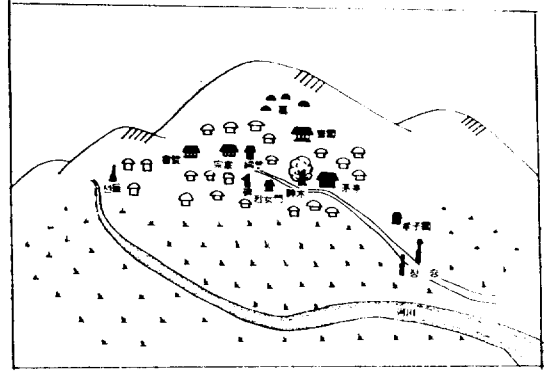


그림 2 同族部落의 構造모델

여섯째, 韓半島의 地勢는 低山性의 山地가 많고, 山間盆地와 山間溪谷이 發達하여 마치 그리이스의 비슷한 地勢에서 都市國家가 발달된 것 같이 一族의 集團이 自給自足할 수 있는 農耕地가 分散되어 있어서 同族部落 發達에 좋은 地理的 環境이었다. 同族部落을 形成하고, 그곳을 小宇宙로 해서 前近代의 社會經濟 構造를 維持해 왔으나, 身分的 階層構造의 解體와 함께 交通의 發達로 同族部落은 그 社會經濟的 構造가 開放的으로 되면서 封鎖的이었던 環境이 解體되어 가고 있다.

일곱째, 農業 生産力이 낮고, 農業이 自然的 條件에 의해서 크게 制約을 받던 時代에는 同族部落에서 同族을 中心으로 勞動의 共同組織으로서 품앗이나 共同作業이 행하여 졌으나, 化學肥料의 사용과 農業技術의 發達로 生産力이 높아지고, 自然에 의존하던 水利도 어느정도 土木技術에 의해서 整備되고, 勞動도 現金으로 日當을 支拂하게 되면서부터 共同體로서의 同族部落 기능이 解體되어 가고 있다.

6. 結 言

文化景觀의 하나인 全南地方의 同族部落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規定해보았다. 즉 部落을 形成한 主體인 住民은 共同의 生活空間에 居住하며, 同姓同本인 血緣의 共通性을 가지면서, 部落의 諸生活에 支配的인 影響력을 발휘하고, 同

祖意識을 갖고 있으며, 祖上의 祭祀와 同族間의 相扶相助를 위한 組織을 갖고 集團行動을 취하며, 그 部落에는 祖上의 祭祀를 위한 共同의 有形的인 施設이 있고, 無形的인 共同行事가 행해지는 部落의 경우를 同族部落이라 할 수 있다.

全南地方의 同族部落 發生年代를 麗末鮮初로 推定하고, 族譜의 始刊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同族部落의 組織과 同族員의 團結을 強化하면서 同族部落의 發達을 促進시킨 要因중에는 朝鮮初期에 시작하여 360年間 계속된 黨爭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同族部落은 風水說의 影響으로 藏風得水가 용이한 山麓立地가 가장 많다.

同族部落의 主要한 有形的 要素로는 宗家, 祠堂, 齋閣, 書院, 茅亭, 神木, 長柱, 各種碑, 旌閣등을 들 수 있다(그림 2).

同族部落의 無形的 要素로는 門中(또는 宗中), 門中財產, 各種契, 共同行事등이 있다.

甲午更張으로 인한 奴婢의 解放, 土地 調査事業으로 인한 封建的 土地所有 形態의 解體, 基督教의 傳來와 普及, 身分社會에서 階級社會로의 轉換, 黨爭의 消滅, 同族部落 成員의 급격한 減少, 交通의 發達, 營農技術의 발달등으로 同族部落은 解體過程에 있으며, 西紀 2000년에 이르러서는 完全히 消滅되고, 새로운 村落構造와 機能을 갖는 韓國의 村落으로 變容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 Clan Village in Jeonlanam Do

Bo-Wong Chang*

Summary

The proportion of clan villages to all villages in Jeonlanam Do is 56 per cent. So the clan village in Jeonlanam Do is not a special village but a universal one. On understanding of a clan village in the area of study will help in understanding the clan villages of Korea. This study has two principal aims to define the nature of such a village and investigate the period of its appearance and location, and to analyze material and non-material elements related to the clan village.

This study is a basically descriptive study rather than a explanatory research in the field of clan village and its key concept is the village cultural landscape. A clan village is one of elements of the cultural landscape, which contains valuable evidence about the origin, spread, and development of cultures. The cultural landscape as well as the clan village changes constantly across both space and time. Thirteen clan villages in Jeonlanam Do are selected as sample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related mountains, plains, and coastal areas.

To define the nature of a village is one of the more difficult problems, because its content is both varied and complex. The writer tried to define a clan village as following:

the inhabitants of a clan village live in a common living area and share same clan feelings and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ritual ancestor worship and mutual help also they tend to behave as a group. There are common material establishments and regular annual events in the clan villages. A clan village is composed of one or, at times, a few predominant surname clans. Generally speaking, it is said that clan villages are combined a group of the same surname and a territorial community.

According to ancient geographic writings, clan villages in the study area appeared about the 15th century. The appearance of genealogical tables at about the same period accelerated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these villages. Party strife, during the Yi-Dyasty, also affected the development of clan villages in many districts. The ranking of location of clan villages in Jeonlanam Do is as follows: at the foot of a mountain, plains, coast, hills, river side, road side, basins, and valley.

Common material establishments in the clan village for ancestor worship and mutual aid are composed of the principal house (宗家), the ancestral shrine (祠堂), the hall for ritual ancestor worship (齋閣), a lecture-hall or a memorial hall for the great scholars and loyal subjects (書院), an arbour or summer house (茅亭), a village guardian god shrine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27, pp.15-30, 1983.

* Associate Professor (Doctor of Literature), Jeonnam National University.

(堂), and some monuments (碑). Group behavior in regular annual events and organizations for mutual help among members of a kinship comprise non-material elements in a clan village.

The development of a clan village in the past was not difficult because of the clan's high social status and its firm economic solidity. However, since the end of the Yi-Dynasty

many of the influential, powerful clan in rural areas have moved to urban areas thus the number of such economically powerful households has diminished in the clan villages. Besides, land reform in 1949, the Korean War, and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y in Korea have brought about the decline of the clan villages in Jeonlanam Do.